

택시 안 / 낮

조수석에 탄 아진.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보인다.

나란히 앉은 둘의 조합이 어색하고 뜬금없다.

운전자 어디 가는 길이셨어요?
아진 남쪽이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산다고 해서.
운전자 그런 말이 있어요?
아진 없나요?
운전자 나야 모르죠. 그런 얘기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진 ...
운전자 저 짐은 뭐예요? 안 가져가도 되나?
아진 네.
운전자 왜요?
아진 모르는 사람들 거예요.
운전자 네?
아진 주운 거라고요.
운전자 쓸만하니까 모은 거 아니에요?
아진 그냥 모은 거예요. 아까워서.

운전자,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운전자 식사 아직이죠?

폐건물 / 저녁

식사하는 식구들과 아진. 아진은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영 불편한 표정이다.

여원 그래도 날이 좀 풀렸죠?
운전자 응, 그니까. 여행 가고 싶네.
딸 오빠 밥 빨리 먹어. 나랑 놀아.

대답 없이 밥만 먹는 여원.

아진은 식탁 너머에 있는 가족이 그려진 그림을 보고 있다.

그 옆에는 동전이 가득 담긴 병이 놓여있다.

딸, 운전자,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그려져 있고, 나중에 그린 듯 여원이 그려져 있다.

운전자는 말이 없는 아진의 눈치를 숙 보고는,

운전자 코트가 예쁘네요.
아진 드릴까요?
운전자 아뇨,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언제부터 혼자 사셨어요?
아진 애매하죠.
운전자 아무래도 그렇죠. 너무 많은 게 바뀌었으니까요.
아진 세상엔 바뀌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운전자 그쵸. 가족은 변함없죠.
아진 모르죠. 변할 수도.
운전자 에이, 같이 한 식탁에서 밥 먹으면 한 식구죠.